

「不屈歌 贗作論」의 辨正

李 東 英*

目 次

- | | |
|----------------|------------------|
| I. 序 言 | Ⅲ. 「不屈歌 贗作論」의 辨正 |
| Ⅱ. 邊氏의 始祖 大隱先生 | 1) 邊安烈의 作品 |
| 1) 邊氏의 世系 | 2) 贗作論의 辨正 |
| 2) 大隱의 生涯 | Ⅳ. 巨村의 人文事蹟 |

I. 序 言

韓國文學會서는 가끔 地方의 先賢遺蹟處를 찾아서 敬慕하는 한편 그곳에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저간에는 永川 龜岡書院과 咸安 合江精舍에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거니와 본고는 奉化郡 巨村 大隱先生을 모신 龜陽書院에서 발표한 것인데 그때는 위의 논제를 副題로 했다.¹⁾ 이날 현장에서는 外地에서 온 학회원을 위하여 奉化郡의 人文事蹟을 소개하기도 했으나 주제는 姜銓燮 교수의 논문 「傳邊安烈의 不屈歌 贗作論」에 대한 辨正이었다. 大隱 邊安烈의 〈不屈歌〉를 國文學研究 분야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黃湏江 교수의 ①「大隱 邊安烈과 不屈歌」와, ②「大隱의 不屈歌 補攷」이다. 이로부터 이 작품을 두고 辭說時調의 창작 年代까지 週及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급기야 姜교수의 「贗作論」이 나왔다. 그의 주장은 이 〈不屈歌〉는 僞作일 뿐아니라 ‘淫亂鄙陋’하다고 하였다. 그 誤謬를 辨正하고자 한다.

* 釜山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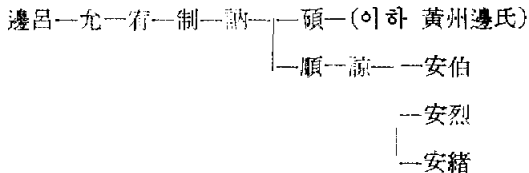
1) 1986년 6월 28일. 龜陽書院에서 발표된 논제는, ① 韓國漢詩의 獨自性(고려대 金宗吉), ② 長詩의 演戲化(부산대 金竣五), ③ 巨村邊氏의 人文事蹟—「不屈歌 贗作論」의 辨正—(부산대 李東英)이었다.

II. 邊氏의 始祖 大隱先生

1) 邊氏의 世系

邊氏는 黃州邊氏(始祖는 邊呂로서 고려 高宗 때 사람)와 長淵邊氏(始祖는 邊有寧으로 淵城府院君)와 原州邊氏(始祖는 邊安烈이니 原州府院君)로 각각 貫鄉을 갖는다. 邊氏는 그 族譜에 宋人渡來說로서 기록하고 있으나 史家들은 新羅 때 黃州에 世居하던 邊煥性 家門의 후예로 논증하고 있다. 邊煥性은 신라의 高僧 均如大師의 아버지이다.

邊氏는 黃州의 鄉戶 家門이었는데 邊呂가 軍功으로 上將軍의 벼슬을 받고 泰川伯에 被封되어진 이후로 그 子孫들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였다. 그 대표적 人物이 邊呂의 아들 邊允(胤)이다. 黃州邊氏 始祖인 邊呂로부터 原州邊氏 始祖인 邊安烈까지의 世系를 보면 다음과 같다.



邊允(一名 胤)의 字는 允之요 號는 西海先生이라(세칭 그렇게 부른 것 같다) 했다. 生卒은 불확실하나 27歲에 進士가 되고 元宗朝에 西海道按察使가 되고 宰相의 지위에 오른 분으로 高麗史·高麗史節要의 正史에 그 활약이 기록된 것은 邊允(胤)이 처음이다. 邊順은 高宗 34年(1247)에 태어나 元宗 9년에 元使 脫染兒에 수행되어 元나라에 가서 元世祖를 謁見하고 瀋陽의 將帥(千戶)로 있다가 千戶侯의 봉작을 받았다.

邊順이 瀋陽千戶侯에 봉작된 후 그의 子孫은 이를 世襲하여 아들 邊諒 손자 邊安伯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었다. 둘째 손자인 邊安烈이 조카 邊肅과 함께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嫁行을 수행하여 還國함으로써 祖國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邊安烈이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寵臣으로서 祖國 高麗에

대하여 忠誠을 아낌없이 쏟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邊氏의 本源地가 黃州였으나 邊安烈이 原州의 賜鄕을 받음으로서 原州邊氏의 分派가 생겼다. 原州는 그의 妻鄕이었다. 世宗實錄 地理誌에 나타난 邊氏의 住居地域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에 分布되어 있는데 경상도의 부분만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慶尙道	{	경주부 안강현(唐來姓)
		경주부 자인현(加恩縣에서 온 鄕吏)
		밀양도호부(土姓)
		문경현, 가은현(土姓)

邊氏는 전국 31개 곳에 동족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주로 경기 등 중부 지역과 경상도에 密集된 분포를 보여주며, 이것은 三國史記나 高麗時代에 나타난 기록과도 일치한다.²⁾ 朝鮮後期에 와서 邊氏는 擴散되어 각 곳에 살고 있으나 新羅 이래로 黃州를 根源地로 했던 邊氏는 長湫, 海州 등 西海道一帶에 먼저 살고 蒙古와의 관계가 시작된 高麗後期에 일부가 元나라 瀋陽地方에 移住하였다가 그중 邊順의 손자 邊安烈이 還國하여 原州邊氏가 생겼다. 朝鮮朝 文獻備考에 나타나는 邊氏의 本貫은 다음과 같다.

- (1) 黃州: 始祖 邊呂은 泰川伯, 邊允은 西海道按察使. 一派가 됨.
- (2) 原州: 始祖 邊順은 本中國柔遠人 瀋陽路千戶 與黃州同源 而分籍云.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은 邊順은 고려 元宗 9년에 元나라에 들어갔고 孫子인 邊安烈이 還國하여 原州의 貫鄕을 받았다.
- (3) 長湫: 始祖 邊永仁은 判典醫事
- (4) 加恩(聞慶縣屬): 始祖 邊立은 中郎將.

文獻備考에는 위의 4개의 本貫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本貫 原州는 邊安烈을 始祖로 한다. 이 밖에 동족부락을 형성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邊氏는 같은 祖上을 받드는 一族이다.

2) 申奭鎬 編, 大隱實紀 pp. 35~36.

2) 大隱의 生涯

邊安烈의 字는 忠可요 號는 大隱이다. 麗朝元宗 9년에 元使 脫朶兒를 수행하여 갔던 邊順의 孫子요 邊諒의 둘째 아들이다. 先生은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嫁行 때 陪行首將으로 還國하여 國難克服에 大功을 세워 賜貫으로서 原州를 받아 原州邊氏의 始祖가 되었다. 다음은 그의 重要 行蹟을 뽑아 編年으로 적겠다.

(1) 邊安烈은 1334년(충숙왕 후3) 邊諒의 둘째 아들로 瀋陽에서 태어났다. 18歲 때 元나라 武科에 합격하여 武人으로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의 祖父 邊順이 元宗 9年(1268)에 蒙古使臣 脫朶兒를 따라 入元하였다가 千戶侯의 封爵을 받아 그의 子孫은 이를 世襲하였다. 즉 아들, 邊諒, 손자 邊安伯(安烈의 형)이 대를 이어 瀋陽侯의 봉작을 계승한 것이다. 邊順의 후손은 元의 領土이지만 高麗인이 집단적으로 살고있는 遼東地方에 世居하면서 有力한 家門을 형성하였다. 邊諒의 次子 邊安烈이 대두한 것도 이를 기반하였던 것이다.

(2) 邊安烈이 元나라 말기의 變亂을 피하여 至正(1351년) 辛卯에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嫁行 때 陪行首將으로 왔다. 그리고 당시 명문이었던 判樞密 元顥의 딸과 결혼하여 原州를 본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邊順의 孫子가 還國하여 온 것이다.

(3) 1363년(공민왕 12) 安祐를 따라 紅巾賊을 토벌하여 功二等을 받았고, 判少府監事로 累遷되었다. (고려사 권40 世家, 공민왕 12년 同 권126 列傳39 邊安烈) 또 安祐등과 함께 京都를 수복하여 功一等에 올랐고, 禮儀判書에 임명되고 推誠輔詐功臣의 호를 받고 密直副使에 올랐다가 知可宰樞로 옮겼다. (고려사 권126 烈傳39 邊安烈)

(4) 1364년(공민왕 13) 甲辰 6월에 判開城府事 石文成과 함께 峯梁(강화·김포간)에서 왜구를 막았다.

(5) 1374년(공민왕 23) 甲寅 8월에 副元帥가 되어 崔瑩 등 濟州 倭寇를 토벌하여 知門下府事 및 評理에 올랐다.

(6) 1376년(우왕 2) 推忠亮節宣威翊贊功臣의 호를 받았고, 揚廣全羅道

都指揮使 겸 助戰元帥가 되어 羅世·趙思敏·柳實과 함께 扶寧에서 왜구를 大破하여 백금 一錠과 鞍馬와 衣服이 下賜되고 門下贊成事에 올랐다.

(7) 1380년(우왕 6) 庚申에 楊廣全·羅慶尙·都體察使가 되어 都巡察 李成桂를 도와 雲峰 引月驛에서 大捷하여 李成桂와 함께 각각 금 50兩이 내렸으나 공은 그것을 사양하였다.

(8) 1382년(우왕 8) 壬戌에 韓邦彥과 함께 丹陽郡에 들어온 왜구를 격파하였다. 또 5월 韓邦彥과 함께 安東에서 왜구를 격퇴시켜 斬 30餘級, 獲馬 60匹의 戰果를 거두었다. 原州府院君에 被封되고, 判三司事에 임명되었다. (고려사절요 권31·우왕 8년)

(9) 1388년(우왕 14) 戊辰 5월에 威化島에서 李成桂 등 諸將과 함께 回軍하였다. 또 7월에 趙浚 등이 田制改革에 대하여 上書한 것이 계기가 되어 田制의 均否를 의논하게 되자, 李琳·禹玄寶·權近·柳伯濡 등과 私田改革을 반대하는 李穡의 뜻을 지지하였다. (고려사 권118 列傳31 趙浚)

(10) 1389년(공양왕 元年) 己巳 11월 13일 前大護軍 金侗과 前副令 鄭得厚가 黃巖에 가서 讒왕(禍)를 私謁하고 李成桂를 除去하려다가 발각되어 일어난 「金侗의 獄死」에 李琳·禹玄寶·禹仁烈·王安德·禹洪壽 등과 辭連되었다. (고려사 권45 世家45) 또 同월에 領三司事가 되었다.

(11) 1390년(공양왕 2) 庚午 1월에 尹紹宗·李詹·吳思忠 등의 上疏로 金侗의 獄事에 관련시켜 削職 流配되었다. 동년 1월 16일에 大司憲 成石璘·左常侍 尹紹宗 등의 疏請으로 流配地 漢陽에서 漢陽府尹 金伯興에게 誅殺되니 享年이 57歲이다. 同年 4월에 回軍功으로 다시 勲劵이 내렸다. 이어 同年 5월에 葬初辭에 관련되어 籍家 削勲을 당하였다. 邊安烈의 悲運은 결국 金侗의 무고로 된 것이다.³⁾

(12) 1393년 (조선조 태조2) 癸酉에 邊安烈은 判三司事 王安德·池湧奇·三司左使 趙仁璧·完山君 元桂·門下評理 鄭地·忠州節制使 崔公哲 등

3) 以上の 기록은 고려사 권40, 世家40, 列傳39, 邊安烈 등과 黃浪江의 논문 「大隱의 不屈歌補攷」(1968, 국어국문학 50호) 참조.

과 함께 二等功臣의 復爵이 되었다.⁴⁾ 朴承任이 「原州府院君邊公墓誌」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本朝復官而還沒入之財 公之英靈於是乎可以少慰矣」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先生의 세 아들 모두가 조선조에 등용되었고 딸은 太祖 李成桂의 제 7자 恭順君 芳蕃의 아내가 되었다.⁵⁾ 編年에 의거하여 다시 史實을 검토해 보자.

高麗朝 對蒙抗戰이 계속되었던 高宗 때 蒙古의 俘虜로 붙잡혀 간 고려 사람이 많았다 한다. 洪福源이란 사람은 西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元에 도망가서 東京總管이 되었고, 崔攄은 西北面에서 반란을 일으켜 蒙古에 內附하자 蒙古가 西京에 東寧府를 설치하고 慈悲嶺을 경계로 삼아 西北人으로 瀋陽地方에 移居하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 黃州에 世居하던 邊氏가 또한 瀋陽에 移居할 요소는 매우 많았다고 본다.

大隱 邊安烈은 邊順의 孫子로서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嫁行에 首將으로 歸國하였다. 그리고 귀국 후의 그의 救國業績은 위에서 본대로 대단한 것으로 실로 高麗朝의 愛國忠臣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敵 李成桂의 一派들이 주도했던 「金符의 獄事」에 용계와 음모를 조작하여 君王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전후 8회에 걸쳐서 謀略上疏를 올려 결국은 誅殺하고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高麗史를 편술함에 있어서 사실과 相反되는 記事로써 曺敏修와 함께 奸臣傳에 編入시켜졌다. 그러나 이미 月汀 尹根壽(1537~1616)와 斗庵 金若鍊(官, 左副承旨)과 같은 先學이 辯破한 바도 있거니와 史學者 申奭鎬 博士는 말하기를 高麗 忠臣 邊安烈은 바로 이러한(註·朝鮮王朝의 建國을 正當化하기 위한 史實) 高麗史 編纂態度에 의하여 희생된 대표적인 人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忠誠을 다한 愛國忠臣이 급격한 政變에 의하여 反逆으로 몰리어 極刊을 당하고, 그 政變의 합리성을 立證하기 위하여 부당한 汚名을 영원히 歷史의 기록으로서 남기게 된다는 것은 歷史의 眞正성을 損傷시키는 불명

4)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조.

5) 朴承任撰「原州府院君 邊公墓誌」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男三 曰願 捷文科判奉常寺事, 曰頤 左軍總制, 曰頊 判訓練院事, 女一 恭順君 芳蕃 其婿也. 朴承任은 外六代孫이며 黃海道觀察使를 역임했다.

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⁶⁾고 하였다.

邊安烈이 高麗朝廷에서 仕官하기 시작한 恭愍王代는 고려 국가의 내부 모순이 크게 노출되던 時期였다. 高麗前代史에 있어서 分水嶺이라고도 할 수 있는 武臣亂 이후 그 根柢로부터 동요되기 시작한 고려왕조는 蒙古의 침입 이래로 그 혼란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蒙古의 수탈은 史上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이와 같이 外勢가 작용하는 가운데 해이해진 高麗의 정치적 기강은 제래의 權門勢族들의 횡포를 한층 더 助長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高麗王朝의 국가적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 이같은 시기에서 邊安烈은 본시 武班의 名將으로서 紅巾賊의 토벌, 여러번 倭寇를 격퇴, 그 싸움터에서 혹은 安祐와 혹은 崔瑩과 혹은 李成桂와 함께 싸우면서 분골쇄신의 武功을 세워 공신의 칭호를 받은 史實로서 高麗朝廷의 愛國忠臣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李弘植의 「國史大事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변안렬 邊安烈: 고려 공민왕 때 문·무관·본래 심양(瀋陽-奉天) 사람인데, 원나라 말기의 병란으로 공민왕을 따라와서 原州를 본관으로 받았다. 安祐를 따라 紅巾賊을 해주시켜 功2등에 올랐었고, 또 안우와 함께 서울 開城을 수복하여 功1등에 올라 禮儀判書로 임명, 공신의 호를 받은 후 判密直司事가 되었으며 崔瑩과 같이 제주를 정벌한 후 知門下府事가 되었다. 禰E 때 楊廣全羅道都指揮使로서 羅世 등과 같이 倭寇를 크게 물리치고 돌아와 門下錄成事로 승진, 이어 도순찰사 李成桂의 副將으로 雲峰에서 왜적을 크게 쳐부렸고 威化島로부터 돌아온 후 정계에서 그의 세력이 林堅珠 李仁任 등과 겨누게 되었다. 丹陽郡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고 安東의 왜구를 물가면 후 原州府院君에 봉군 공양왕 초에 三司事로 임명되었으나 金守의 후고로 漢陽에 流配, 이어 유배지에서 사형되었다.⁸⁾

大隱 邊安烈에 대한 記錄文獻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列傳(邊安烈), 閔隱文集 年譜, 牧隱文集 卷1, 太祖實錄 卷1-3, 宣祖實錄 卷126, 燃藜室記述 卷1, 東史綱目 改定田制 卷17, 月汀別集 卷4, 高麗府院君亮節公實

6) 申奭鎬, 「大隱實紀」(1977. 10. 25) 序文.

7) 申奭鎬, 「大隱實紀」高麗末期의 時代相, 1977. p. 40.

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1977, 大榮 出版社刊) p. 582. 방점은 筆者.

記, 原州府院君墓志(朴承任撰) 등이고, 私家의 文字로는 邊希李의 「傳家錄」의 경우 口傳의 기록을 포함하였고 대개 史料에 의한 것이었다.

Ⅲ. 「不屈歌贖作論」의 辨正

1) 邊安烈의 作品

大隱 邊安烈(1334~1390)이 끼친 文字는 다음의 漢詩 7수가 있을 뿐이다. 먼저 그 작품을 보여 놓겠다.

1. 不屈歌

穴吾之胸洞如斗	내 가슴에 구멍을 뚫어
貫以藥索長又長	길고 긴 새끼 줄 꿰어
前牽後引磨且罽	앞 뒤로 당겨서 쓸고 베일지라도
任汝之爲吾不辭	멋대로 맡겨 사양치 않겠으나
有欲奪吾主	내 입을 빼앗고자 함은
此事吾不屈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다.

東國留居吟二首

- | | |
|------------|-------------------------|
| 1) 粵余華姓自軒轅 | 나는 華姓으로 軒轅에서 왔고 |
| 昭載帝王世乘傳 | 제왕의 세승에 실려 밝게 전해 오노라 |
| 初命玄禽天降聖 | 태초 玄禽을 시켜 하늘이 天聖을 내시고 |
| 更朝白馬國封賢 | 다시 白馬를 바치니 나라가 聖人을 봉하노라 |
| 大夫名伯居周祖 | 大夫의 이름은 伯周에 살던 祖上이고 |
| 公子字邊出宋先 | 公子 字邊은 宋나라에서 온 先祖라 |
| 東土三支分一本 | 東國 땅 세 갈래에 하나를 맡아서 |
| 秦川中葉氏綿綿 | 秦川에 살아 氏族이 綿綿하도다. |
| 2) 左衽乾坤夙避地 | 오랑캐가 천지를 짓밟아 避地하니 |
| 大東自有小中華 | 大東은 스스로 小中華라 |
| 唐堯並立傳檀木 | 唐堯와 並立한 곳 檀木이 전하고 |
| 周武所封纒欖花 | 周나라 武王이 봉한 곳 무궁화가 들리었다 |

鳥晚橫居風氣勁
海餘連陌月輝斜
高山麗水吾先國
松茂承承祝永嘉

날 저문 섬에 비껴누우니 바람이 지새이고
바닷가를 거니노니 달빛이 기우누나
산 높고 물 맑은 곳 나의 祖國아
松柏이 무성하듯 영원토록 빈다.

漢陽流所吟四首

- 1) 神州沈陸我徂東 神州가 沈陸되어 내 동으로 왔노라
 文物箕邦尙有風 文物이 뛰어난 箕子の 나라 風流가 있구나
 航海朝天昭大義 바다를 건너 天子를 뵈고 大義를 밝히며
 柵山關地建殊功 山地的 柵關에서 뛰어난 功을 세웠다
 一時失處王孫宮 한 때 처소를 잃은 菑의 왕손이요
 三歲奉歸太甲桐 三年만에 돌아오게 된 桐의 太甲이라
 眞僞且看來後事 眞僞를 살펴봄은 이 뒤의 일이요
 彼蒼應識且丹衷 푸른 하늘은 응당히 이 충정을 알 것이다.
- 2) 堂司七月享驪興 堂司 七月에 驪興을 찾아 제사함에
 轉驪風波出始水 도리어 風波를 일으켜 끝이 없구나
 公議方迎殷王冕 공의는 殷王을 맞으려는게
 隱憂將恐漢金滕 깊은 근심은 漢의 金滕을 두려워 한다
 舊都勝地雖怡養 舊都是 勝地라 비록 은화하다마는
 冲嗣彝天合奉承 어린 임금의 하늘에 몇몇하여 받들어 모시다.
 前年誰讀霍光傳 年前에 누가 霍光傳을 읽었는가
 千里燕書更一層 千里 밖 燕나라 편지는 한층 새롭다.
- 3) 玄陵松柏載蒼旻 玄陵의 松柏이 푸른 하늘을 떠 받들고
 正正孫枝子葉春 정정한 松枝에 子葉이 싹튼다
 桃李門前風共伴 桃李門 앞에 바람과 동반하고
 竹梅園裡雪孤鄰 竹梅園裡에 눈(雪)을 이웃했도다
 杏文中路私何圻 杏文에 무엇을 사사로이 호소하겠는가
 宗社上王義可遵 宗社의 上王을 의롭게 받드노라

- | | |
|------------|---------------------------|
| 三世相承十六載 | 세 임금 계속하여 十六年을 모셨거니 |
| 諸公孰不舊朝臣 | 諸公인들 누가 舊朝의 臣下아니리오. |
| 4) 自我居東四十春 | 내가 동토에 거주한지 四十年 |
| 貞忠直節獨求伸 | 貞忠直節을 펴고자 하였도다 |
| 花山月驛傳歌凱 | 花山 引月驛에서 凱歌를 부르고 |
| 威化島耽羅學義幡 | 威化島 耽羅에서 의로운 깃발 올렸노라 |
| 歷事三朝天寵舊 | 三朝를 섬겨서 하늘의 은총이 오래이고 |
| 策勛一等地望新 | 勳功一等에 명망이 새로왔다. |
| 始何□□□□□ | 始何 一以下五字缺一 |
| 未念中興孰効颯 | 아직도 中興을 피하지 않으니 누구를 분발울고. |

그리고 위의 大隱先生의 작품 외에 동시대 사람으로서 邊安烈에 대한 기록은 또 다음과 같다.

- 1) 治隱 吉 再, 大隱邊先生遺事
- 2) 牧隱 李 穡, 大隱邊先生行狀
- 3) 圃隱 鄭夢周, 大隱先生傳

등 세 편이 있고 圃隱, 牧隱, 治隱, 陶隱, 撫安大君(李芳蕃)의 5 편의 제문이 모두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옮겨 보인다.

- 1) 歲壬申月正日既望 故人邊大隱公 殉節之再暮也 情友守侍中 延日鄭夢周 奠告于墓曰 凜凜秋霜 公之忠烈 烈烈白日 公之義節 此夜痛哭 何日敢忘 物薄情厚 靈庶來嘗 嗚呼冤矣 圃隱 鄭夢周
- 2) 今年日壬申月之元既望 原川府院君 大隱邊公 殉節之再暮也 其友韓山君李穡 尚未敢泄哀 此何氣數 具薄奠 綴蕪詞 痛哭告訣于墓曰 樹古今天地之臣綱者 非公而誰 激千秋萬歲之義士者 非公而誰 漢水波勞湯湯 而流不盡 三角山兮崑崙 而青不磨 猗歎與江山而不盡 而不磨者 非公之忠烈而何 言不可長 一哭而退 冤乎冤乎 牧隱 李穡
- 3) 歲庚午孟春既望 原川府院君 不屈堂邊公殉節 門下注書吉再 不敢一哭

泄哀 越二年琴祥使子師舜 具奠往告于墓曰 惟靈至忠苦誠 大義偉烈 百
僚山仰 一朝瓦裂悲痛莫追 我心摧割 已矣已矣 冤乎冤乎 言不盡哭先發
治隱 吉 再

- 4) 於乎 使公任之柱石者 命也天也 使公死之斧鉞者 命也天也 公於命何
哉 我於天何哉 所不朽者 不屈之歌 言不可長 哭不敢遲 陶隱 李崇仁
- 5) 於乎 舍生取義 忠節之卓 不屈遺歌 巖巖松岳 國人曰賢 矧余升堂 茲
用奠掃 以寓羹牆 撫安大君 芳 著

이상이 邊安烈의 遺詩와 또 邊安烈과 交遊가 있었던 분의 文字이다. 이
뒤에 玄孫인 邊希李(1435~1509호, 歸溪)의 기록인 「傳家錄」(임진란전)이
있다. 이밖의 「高麗府院君亮節公實記」·「原州府院君邊公墓志」(朴承任撰)
「大隱先生實記」(邊鎬元編)「先祖傳行狀」(邊永錫寫本)등은 모두 三隱의 기
록에 의거하여 오직 大隱先生의 忠節을 宣揚하는데 힘썼다. 앞에서 본 그
의 盡忠竭力한 업적이 「金竹의 獄死」때 흥계에 의하여 상반되는 奸臣條
에 기록이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모든 史料에 의하여 大隱 邊安烈의 報國
忠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2) 贗作論의 辨正

그런데 近者 國文學界에서 邊安烈의 작품 「不屈歌」의 作者疑案이 提起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두고 辭說時調의 창작 年代까지 문제되었
다. 이점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거니와 먼저 이 「不屈歌」가 거론되었던
논고를 밝히고서 말하겠다. 「不屈歌」에 대한 최초의 집필자는 黃溟江의
① 「大隱 邊安烈과 不屈歌」와 ② 「大隱의 不屈歌 補攷」이다.⁹⁾ 그러면 黃
교수의 논문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黃교수는 麗末 麗亡前後의 暗黑期에서 麗朝遺臣의 忠烈의 자취가 史官
(李朝)의 曲筆에 맡겨진채 후대에 眞蹟이 전해지지 못했음을 전제하고 麗
末 討賊擊倭에 挺身하여 一等功臣의 錄功까지 받은 大隱 邊安烈은 麗臣으
로서 高節을 지키다가 殉死한 武班이다. 그 자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9) 黃溟江, ① 檀國大學校 論文集 제2집(1968.11)

② 국어국문학 제50호(1970)

鄭麟趾 等 撰의 高麗史에는 列傳「姦臣條」에 登載되어 있다.¹⁰⁾하고 大隱 邊安烈의 「不屈歌」의 발굴 경위를 밝혔는데 그것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筆者는 偶然한 機會에 邊安烈의 行狀 其他를 集成한 大隱先生實紀를 求得할 수 있었다. 同實紀는 1949年 己丑에 楊州省澆會에서 刊行한 二卷 一冊의 木板 線裝(五針眼釘本)本이다. 同實紀 卷一에 邊安烈所作의 「不屈歌一闕」이 漢譯되어 收錄되어 있었다. 同歌에 註記한 바를 보면 麗末에 李芳遠이 諸宰에게 소위 何如歌로 歌試하였을 때 鄭圃隱이 이에 答하여 丹心歌를 부른 뒤를 이어 邊大隱이 不屈歌로써 答할 수 없는 뜻을 담아 答하였다고 하고 圃隱과 大隱의 被禍의 發기는 이날에 올튼 것으로 世傳한다고 했다.

그 뒤 筆者는 正祖 24年(1800年) 庚申에 刊行된 庚申譜(原州邊氏世譜) 卷一과 高麗府院君亮節公實記(筆寫本)를 求見할 機會를 가졌다. 庚申譜(卷一)는 距今 約 170年前에 刊行된 古活字 印本으로 正祖代 承政院左副承旨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을 지낸 金若鍊의 序를 卷頭에 실고 이어 大隱 四代孫 鐵原都護府使 邊成의 舊譜序, 同七代孫 邊循의 舊譜跋, 外六代孫인 黃海道觀察使 朴承任의 原州府院君神道碑文 同 陰記, 通政大夫 藝文館 副提學 孫比長의 洗馬公墓碣銘 弁序, 雜錄 附, 原州沿革, 墓所圖(大隱夫妻, 摠制公夫妻), 原州府院君以上繫世圖, 原州府院君以下分派圖, 世紀, 世譜 等이 登載되어 있다. 庚申譜 雜錄中에 大隱五世孫 歸溪 邊希李의 傳家錄의 所言이 引記되어 있다.¹¹⁾

하고 「傳家錄」의 기록자 邊希李를 적고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筆者(註, 黃湏江) 寡聞의 탓인지 邊希李의 傳家錄이 現傳한다는 말은 못들었다. 따라서 不屈歌(庚申譜에는 「不從」의 語辭로 기록하였으나 기타의 文籍이 不屈歌로 指稱함을 좇아서 以下 不屈歌로 부름)의 現傳하는 母型은 傳家錄을 引한 庚申譜 雜錄記文에 依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大隱의 五世孫 邊希李는 그 生存의 時代가 麗亡의 時期(1392年 前後)에서 約半世紀를 隔하는 故로 玄祖大隱의 故實에 대해서 昭詳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하물며 「希李學行拔萃 朋齒皆服其 爲人與公之門必有是人」(庚申譜 洗馬公墓碣銘弁序)의 邊希李에 있어서라. 「作賦

10) 黃湏江, ①의 논문 p. 60.

11) 黃湏江, ①의 논문 pp. 60~61. 그리고 「庚申譜」

執義歸溪公 諱希李 傳家錄云 麗祚將革 太宗遯幸執飲 自爲歌 試諸公意 圃隱 歌曰 此身死復死復死一百回 白骨化塵土 魂魄有無 向君一片丹心 那有磨滅理 君院府歌曰 穴吾之胸洞如斗 貫以藥索長又長 前牽後引磨且憂 任汝之爲吾不辭 有欲奪吾主此事吾不屈 二公之志 眞可謂與日月爭光 而圃老之歌 懇惻切至 府院君之歌 則尤直截剛毅 有確乎不可撓 凜乎不可犯之氣 <庚申譜「雜錄 附」>

和陶靖節歸去來辭」하던 風流清士 邊希李가 玄祖大隱의 遺愛 不屈歌를 記聞하였다 함은 實히 있을만한 일이다. 이로써 人口膾炙한 圃隱의 丹心歌와 伯叔을 이룰 大隱의 不屈歌를 비로초 文學史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¹²⁾

하고 제 3 항은 「大隱故事 辨正」, 제 4 항은 「麗季 諸隱과 大隱」을 가지고 결론을 지었다. 이 두 항목은 모두 大隱의 忠節을 밝힌 부분이다. 그리고 黃교수의 두 번째 논문 『大隱의 「不屈歌」 補攷』(국어국문학 50호)는 “國文 原歌를 中心으로”란 副題를 붙였다. 그는 靑丘永言에 있는 翻案 사설시조 작품을 발견했던 것이다. 黃교수는 그의 두 번째 논문 「不屈歌 補攷」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다시 補筆을 들게된 것은 이미 오래 전에 亡失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不屈歌의 國文歌詞를 최근에 다시 發見했기 때문이다. 前稿에서 筆者는 不屈歌의 漢譯文을 소개하며 口唱되던 本의 國文歌詞를 더듬을 길 없음을 탄탄 바 있었으나 이제 그것을 發見한 이상 그 한은 霧散되어 버렸다.

本攷의 論旨 展開를 위해서 前稿의 많은 것을 援用하여 不屈歌와 作者의 關係를 再論하고 아울러 口唱된 本歌의 內容을 소개하고 그 意義를 究明코자 한다. 本歌와 作者에 대한 本格的인 論考, 그 자체는 前稿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금도 없다. 詳論은 前稿에 미루고 作者와 作歌經緯에 관한 것은 紹介를 곁해서 간략히 概括함에 그치려 한다. 당초 不屈歌論考의 端緒가 된 것은 原州邊氏世譜(以下「庚申譜」라 略稱함. 正祖 24年, 庚申, 1800年刊) 卷1 「雜錄」 부분의 所記였다.¹³⁾

하고 邊安烈의 업적을 밝혀서 이 부분은 첫 번째 논문과의 중복이 많았는데 이미 大隱先生의 忠節에 대하여는 先賢들의 논증도 있어서 더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黃교수가 흥분한 것은 “國文歌詞의 발견”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筆者는 不屈歌의 國文歌詞가 이미 오래전에 亡失되어 遺傳치 않는 것으로 連斷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現在 대할 수 있는 庚申譜 所載의 漢譯歌詞를 國文으로 反譯함으로써 自慰하였다. 그러나 邊大隱의 不屈歌가 嚴然히 國文時調로 現

12) 黃淇江, ①의 논문 pp. 62~63.

13) 黃淇江, ②의 논문(국어국문학 50호, 1970. 국어국문학회) 방점은 필자.

在에 전하고 있음을 最近에 發見하고 놀라움과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다.

靑丘永言 「言樂」에 다음과 같은 時調가 있다 하고 <대학본 靑丘永言>의 등재 작품과 <진본 靑丘永言>의 등재 작품을 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본 靑丘永言>(549번)의 작품과 沈載完의 <歷代時調全書>(33번)의 등재 작품을 인용하겠다.

- 가슴에 궁글 동서러케 뿔고 원숫기를 눈길게 너숫너숫 소와 그궁게 그 숫 너
코 두 늬이 두긋 마조자바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근 홀저리근 나남죽 늬대파
그는 아모쁘로나 견되려니와 아마도 님 의오 살라면 그는 그리 못허리라.

〈珍本 靑丘永言〉

- 가슴에 궁글에 동그러케 뿔고 원숫기를 눈길게 소와 그 궁게 그 숫기너코 두
늬이 마조 잡아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근 홀적 홀적이는다. 남죽남 大都도 그
는 아모쁘로나 견되려니와 아마도 님 의오 살나하면 그는 그리 못허리라.

〈樂時調〉(瓶歌 991) p. 13.

위의 사실시조는 적어도 歌集 20종에 등재되어 있고, 그 작품들은 字句의 번이가 있어서 굳이 異本이라던 異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黃교수가 말한 「不屈歌의 國文歌詞를 최근에 다시 發見했기 때문이다. 前稿에서 筆者는 不屈歌의 漢譯文을 소개하며 口唱되던 바의 國文歌詞를 더듬을 길 없음을 한한 바 있었으나 이제 그것을 발견한 이상 그 한은 霧散되어 버렸다」. (방점은 필자)는 것은 黃교수가 邊大隱의 不屈歌의 原典을 國文歌詞로 파악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논문부터 ‘大隱先生實記卷一에 邊安烈所作의 不屈歌一闕이 漢讀되어 收錄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筆者의 조사로는 「不屈歌」는 漢譯이 아니었다. 다만 邊大隱의 忠節에 대한 有關資料의 섭렵에는 敬意를 갖는다. 그런데 黃교수의 논문에 反論을 낸 姜詮燮의 「傳邊安烈的 不屈歌 擬作論」(1983. 11)은 우리를 충격케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丹心歌와 何如歌의 遡源의 研究」(1982.7)에서도 ‘丹心歌와 何如歌는 걸코 高麗末의 작품으로 볼 수 없고, 어느 華麗한 장소 教坊이 아니면 歡樂處, 宴會席 등에서 불려지다가 차츰 人口에 널리 膾炙된 작품이라고 보아야 옳지 않을가 한다’하고 또, 傳圖隱作 「丹心歌」도 守節

妓女들의 戀情之詞로서 教坊에서 愛誦되어 불려지다가 고려말의 忠臣인 鄭圃隱의 忠臣戀主之詞로까지 訛傳附會되고 忠臣追慕傳說로서 확대부연되어 문헌상에 정착된 것'이라¹⁴⁾ 했다. 丹心歌와 何如歌와 不屈歌는 모두 口傳의 정착이므로 文獻上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現傳하는 기록들을 모두 不信하거나 否定하는 태도에도 결코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나 現傳하는 文獻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근거해서 해명되어야 한다. 다음은 姜堯수의 논문을 살펴서 그의 속단이 무엇인가 밝혀 보기로 한다.

제 1 항의 「不屈歌의 書誌」에는 (1) 「邊大隱安烈遺事」, (2) 「傳家錄」, (3) 「大隱先生實紀」, (4) 「先祖傳行狀」, (5) 「高麗府院君亮節公實記」에 대한 文獻의 解題였는데 이는 본론의 전개를 위한 資料를 보인 것이었다. 이는 黃堯수의 해제가 참고 되었다.

제 2 항은 「不屈歌의 異本」이다. 여기서 姜堯수는 “傳邊安烈作「不屈歌」의 異本에는 漢文本과 國文本이 古文獻과 古時調集에 각각 전하여 오고 있다” 하고 「原州邊氏世譜」(庚申 1800) 雜錄의 邊希李(1435~1509)가 기록한 〈不屈歌〉의 그 끝귀가 〈此事吾不從〉으로 된 것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不屈歌의 漢譯本을 들어보면 「不從歌」와 「不屈歌」의 2종의 異本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하고 ‘近刊(1949)된 邊鎬元(大隱公 十九代孫)등의 편저인 「大隱先生實紀」 卷一에도 改作된 漢譯本 「不屈歌一闕」이 轉載 收錄되어 있다.¹⁵⁾ 하면서 〈不從〉과 〈不屈〉의 차이(從과 屈)를 지적하여 一字의 潤色이지만 의미의 變化를 가져왔으므로 改作으로 보아야 한다’ 하였다. 종래 우리들의 父祖들은 先賢, 先師 및 祖先의 文集들을 출간하고자 할 때는 간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校勘·校閱者로서 添削케도 한다. 姜堯수가 지적한 〈不從〉과 〈不屈〉은 어떠한 차이인가? ‘不從은 좃거나 따르지 아니함’이요, ‘不屈은 굽히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감’이다. 이를 潤色이라고 하거나 改作이라 함은 부정적 태도의 노출이다. 邊希李의 「傳家錄」 이전의 문헌상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 姜堯燮, 「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3. 20. p. 36. 그의 上掲 논문들은 이 책에 있음.

- (가) 吉 再의 「大隱邊先生遺事」에도 〈此事吾不屈〉이고,
 (나) 李 穡의 「大隱邊先生行狀」에도 〈此事吾不屈〉이고,
 (다) 鄭夢周의 「大隱邊先生傳」에도 〈此事吾不屈〉이고,
 (라) 李崇仁의 祭文에도 〈所不朽者不屈之歌〉이고,
 (마) 李芳蓄의 祭文에도 〈不屈遺歌巖巖松岳〉이다.

그리고 위의 문헌 이후의 자료에는 모두 〈不屈〉로 적혔다. 그런데도 邊希李의 不從을 〈의미 변화를 꾀한 改作〉이라고 하겠는가? 오히려 이 항목에서 姜堯수가 「不屈歌」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는 國文本을 들 수 있는 데' 하고 그 異本들의 변이를 對校表로서 작성하여 보였다. 이는 앞에서 沈載完의 「歷代時調全書」에 記錄文獻 20종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姜堯수도 大隱의 작품 原典을 國文歌詞로 파악했기 때문에 「漢譯內容이 서로 다르지 않고 똑 같다」고 했다. 작품을 國文本의 사실시조로 파악함으로써 教坊의 歡樂處 宴會席 등에서 불려진 戀情之詞로서 愛誦되다가 忠臣戀主之詞로까지 訛傳附會되고 忠臣追慕傳說로서 확대되어 문헌상에 정착된 것이라 했다. 姜堯수는 사실시조=蔓橫의 等式에서 蔓橫은 '淫哇' 하나까 따라서 不屈歌도 '淫亂鄙陋' 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속단이다. 또 근거도 없이 「英祖年間 古時調集」에 채록된 國文本을 母本으로 한 漢譯된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는 〈何如歌〉·〈丹心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原詩가 사실화하면서 과장되어 간 것이다. 그것은 演戲化하기 때문이다.

제 3 항은 「不屈歌의 文獻檢討」이다. 여기서 姜堯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제하였다.

傳邊安烈作 「不屈歌」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朝鮮後期の 私家文獻 중에 採錄되어 전하여 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信憑할 수 있는 典籍이 發掘되어서 그것을 論據로 하여 理論이 전개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겠으나, 만약 信憑性이 결여된 자료라면 學界에 昏迷와 誤謬가 連鎖的으로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筆者는 操心性있게 다음과 같이 傳來文獻들을 냉철히 批判·檢討하여 보려고 한다.¹⁵⁾

15) 姜堯燮, 위의 책, p. 40.

16) 姜堯燮, 앞의 책, p. 43. 방점은 필자.

하고서는 「治隱續集」(哲宗 9년 1858) 卷二에 수록된 「邊大隱安烈遺事」와 「大隱安烈祭文」이 새로운 문헌자료로서 다른 典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록이라 하고, 그 出典과 발굴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丹心歌와 何如歌가 공교롭게도 沈光世(1577~1624)의 「海東樂府」(1617)의 漢譯歌와 똑 같으며, 不屈歌의 漢譯歌도 庚申譜의 〈此事吾不從〉이 아니고 年代未詳 필사본 「先祖傳行狀」과 大隱先生實記(1949)의 漢譯歌 〈此事吾不屈〉과 똑 같다는 점을 의심하였다.

또 「大隱」이란 호도 후손들의 追慕心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아지는데, 더구나 「大隱邊安烈祭文」에 보이는 「不屈堂」이란 堂號는 祭文이 贗作附會일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풍기고 있음을 看破하게 하는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姜교수는 스스로 〈信憑성이 결여된 자료〉, 〈贗作附會일 가능성〉을 논거로써 眞實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姜교수의 지적 가운데 遺事에서

李成桂 使子置酒 邀圃隱及 試歌曰 〈何如歌〉…圃隱和曰 〈丹心歌〉…公又和曰 〈不屈歌〉…云云¹⁸⁾

李成桂가 아들 芳遠을 시켜 주석을 베풀고 圃隱과 공을 초청하여 시험할 마음으로 노래하여…〈何如歌〉(此亦何如 彼亦何如…)를 부르고, 圃隱이 화답하여…〈丹心歌〉를 부르고, 공이 또 화답하여 〈不屈歌〉를 불렀다. (본문에는 작품 전문을 보이고 있음) 이 句節이야말로 전해오는 말(口傳)을 文字化한 것일 수 있다. 姜교수가 邊安烈이 鄭夢周보다 2년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지적했고 姜교수의 논문 「丹心歌와 何如歌의 溯源的 研究」에서도 李芳遠이 酒席을 베풀고 鄭夢周를 초치하여 의사를 떠보기 위해 〈何如歌〉와 〈丹心歌〉로 唱酬되었다는 기록의 文獻이 10종이나 있음을 보이었다.

17) 姜詮燮, 앞의 책, p. 44.

18) 吉治隱撰, 「大隱邊先生遺事」治隱先生拾遺集, 口傳을 문자화 하는 중에서 혼용하여 적을 수도 있다.

漢文文獻: 「丹心歌」와 「何如歌」의 漢文으로 기록된 文獻에는 ①「海東樂部」, ②「藥泉集」, ③「句五志」, ④「燃藜室記述」, ⑤「朝鮮樂府」, ⑥「研經齋全集」, ⑦「訣聞瑣錄」(?), ⑧「書名未詳書」, ⑨「益陽誌」, ⑩「新編聞隱集」 등이 있다.¹⁹⁾

그 一例를 들면 沈光世(1557~1624)의 「海東樂府」에는

及文忠心跡信著 太宗設宴請之 作歌侑酒曰
 此亦何如 彼亦何如
 城隍堂後垣 顏落亦何如
 我輩若此爲 不死亦何如
 文忠 遂作歌送酒曰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歎
 太宗 知其不變 遂議除之

와 같다. 그런데 鄭夢周의 기록이나 邊安烈의 기록이 初刊의 圃隱集에도 없고 「治隱集」에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도록 口傳되어 온 것이 父祖들에 의하여 文字化되고, 또 文字化되는 가운데서 그 忠節을 강조하다 보니 그 상황들이 差錯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李芳遠의 〈何如歌〉와 鄭夢周의 〈丹心歌〉와 邊安烈의 〈不屈歌〉가 어떤 酒席에서 함께 唱酬되었다는 기록은 「傳」과 「遺事」와 「行狀」의 세 편에서 그 내용과 文體가 거의 同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逸失되었던 文字거나 父祖의 口傳의 定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작품들이 전하지고 歌作의 경위가 불합리하면서도 긍정적인 많은 文字들이 전파되어 왔다.

姜鈔수는 〈信憑할 수 있는 典籍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附會된 기록들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아니라는 기록은 없었다. 미루어 생각하건대 근거가 없었던 文字는 아니었다고 본다. 최초의 邊安烈과 文字로 관계되어 있는 분은 다음과 같다.

19) 姜鈔燮, 위의 책, p. 17.

大隱 邊安烈(1334~1390) 被禍로 죽음.

圃隱 鄭夢周(1337~1392) 被禍로 죽음.

牧隱 李穡(1347~1392) 死因을 의심.

治隱 吉 再(1353~1419) 昌王元년에 고향으로 돌아감.

陶隱 李崇仁(1349~1392) 被禍로 죽음.

李芳遠(1367~1422) 李成桂 제5男(太宗).

李芳蕃(? ~1398) 李成桂 제7男. 邊安烈의 사위, 被禍로 죽음.

위의 분들 중에서 두 왕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麗朝의 忠臣으로서 新王朝에 의하여 被禍를 입은 분이다. 이들이 新王朝 건국의 반대자로서 처형이 된 이상 그들의 文字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었던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邊安烈만은 또 奸臣傳에 등재되었으니 그들의 後孫들에 의해 있었던 文字마저 收錄을 기피할 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 오직 吉治隱 한 분만이 온전했던 것은 吉治隱은 昌王 元년에 門下注書가 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國情이 어지러워지자 老母를 奉養한다 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善山에 돌아와, 후진의 교육에만 전력하였다. 그래서 門下에 江湖 金叔滋를 두어 金叔滋, 金宗直, 金宏弼, 趙光祖 등으로 그 學統을 이어 가게 했다. 그렇다고 治隱의 文稿들이 잘 보존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몇 번의 補遺가 있었다. 「邊大隱安烈遺事」와 「祭文」은 李彙寧(眞城人·號 古溪·官 東萊府使)의 校正本인 「拾遺 및 續集」에 들어 있다. 그런데 가장 古文獻은 大隱公의 五世孫인 邊希李(1434~1509, 號 歸溪·官 刑曹佐郎)의 撰述인 「傳家錄」에 의거되었다. 姜교수는 治隱의 遺事を 지적하여 ‘歸化人이요 武臣인 邊安烈에게 바칠만한 여전이라든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었던 治隱 주변의 事情을 감안할 때에 信憑性이 매우 약한 글이 아닐 수 없다고 보아진다’는 것이다.

邊安烈이 이미 元나라에서의 武科 及第者로서 그의 祖父인 邊順이 遼東 地方에서 封侯를 받은 집이요, 또 高麗民이기 때문에 선발되어 恭愍王과 魯國公主를 陪行한 首將이 되었었다. 恭愍王 쪽으로 보면 同族이요, 魯國公主 쪽으로 보아도 流民으로서 元나라의 풍습제도에 익숙하므로 보다 親近感을 가졌을 것이다. 그때 邊安烈이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寵愛를 받아

그 忠誠을 다한 것이다. 더구나 「文武의 官職을 역임하였고, 治隱의 〈不事二君〉과 同軌로서 文字가 있을 수 있다. 邊安烈이 武班이라 하더라도 高麗朝를 지키고자 했던 僚臣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응당 兼筆家의 輓祭가 있을 것이요, 위의 다섯 분 중에서 大隱先生 외에는 모두 文班의 學者이니 그들에게 글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모두 당시로는 反新王朝派로서 反李成桂의 同志로서 뜻을 같이했다가 大隱先生이 최초로 변을 당하게 되었다. 어찌 追慕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필자도 現傳하는 文字들이 原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의 이 분들의 처지를 상상해보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遺族으로서 무엇을 온전히 보전하였겠는가? 당시 상황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제 4항에서 姜洵수는 「不屈歌는 과연 邊安烈 作인가?」하고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기록들은 ‘虛無孟浪한 일종의 傳說이요 語不成說의 虛構임을 용이하게 判斷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姜洵수의 否定的으로만 보려는 視覺과 또 非學問的인 貶論을 한 데 대하여는 따지고 맞설 생각은 없다. 學問研究의 方法은 물론 다양하지만 姜洵수는 논문 「傳邊安烈의 不屈歌 贋作論」에서 黃涇江, 黃忠基를 두고, 두 사람이 모두 史料批判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여 文獻內容을 그대로 盡信하고 速斷하였기 때문에 贋作附會의 虛實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筆者(姜詮燮)가 眞實을 밝혀낸다’라고 하였다. 대저 전해오는 기록에는 결함이 발견될 수 있고 결함이 발견된다고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姜洵수가 바라는 마음은 「信憑性(아니라는) 있는 典籍이 發屈되어서 그것을 論據로 하여 理論이 전개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겠으나」(同書 p. 43)하고 바라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何如歌〉나 〈丹心歌〉나 〈不屈歌〉가 모두 그들의 작품이 아니라는 古典籍은 없지 않는가. 姜洵수의 「不屈歌 贋作論」에 대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릴 수 있다.

첫째, 古典作品에 관한 발생적 原因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그 작품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초의 기록을 否定할 근거가 없으면 그러한 근거가 발견될 때까지 최초의 기록을 信憑하거나 아니면 否定은

유보되어야 한다.

둘째, 文獻上的 부분적인 差錯만으로 작품과 작자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 그것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지만 굳이 본인의 작품이든 子孫의 작품이든 이 不屈歌는 어디까지나 邊安烈(본인)의 生涯와 그의 기록이 작품의 소재가 된 것은 사실이다. 邊希李의 「傳家錄」을 전혀 근거없다고 하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邊希李의 기록동기는 조상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그 업적을 밝혀서 그의 충절함을 찬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文字를 贗作 附會할 생각이면 「遺事」, 「行狀」, 「傳」은 물론이고 片言隻字의 祭文을 그대로 들 까닭이 없을 것이다. 오직 수집된 원형의 상태, 그리고 口傳해 온 말을 文字化하여 보존해 왔던 것으로 본다.

세째, 不屈歌의 작품 의미는 작가의 동기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작품의 의미와 작품 뒤에 함축되는 작가의 동기나 의도는 작품의 내부에서 또는 작가의 정신 속에서 문학으로서 정당화 된다. 작품 속의 중심 소재나 세부적 소재들은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形象化하는 機能을 한다. 작품 속의 소재들을 작품의 의미와 관련짓지 않고, 외래적 사실과 관련지으려는 것은 문학을 문학이 아닌 것과 混同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자체로서 自立的이다.

네째, 원본의 기록이야말로 일차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면 不屈歌의 경우 大隱 邊安烈의 작품이라는 기록은 있고, 아니라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그 子孫의 집에서 나온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 邊安烈에게 이러한 작품이 있다고 해서 大隱의 生涯가 더 위대해지거나 없다고 해서 그 반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본래 文學家로서의 生涯가 아니요 邊安烈은 高麗朝의 忠節로서 一生을 마쳤다.

다섯째, 「不屈歌는 또한 麗末의 作品인가?」(제 5 항)라고 하였다. 여기서 姜교수는 邊安烈의 작품이 아니라고 파악했으니 물론 麗末의 작품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不屈歌는 분명히 辭語도 淫亂하고 歌意內容도 鄙陋하기 짝이 없는 蔓橫淸類(사실사조)이므로 高麗末의 志士가 높은 志操

를 읊은 작품도 아니라고」²⁰⁾했다. 이것은 不屈歌를 蔓橫淸類로 파악한 때문이다. 사설시조는 蔓橫만으로 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搔簞’, ‘編樂’, ‘編敷’ 등으로 말하는 데 향차 不屈歌는 歌曲源流의 ‘言樂’편에 들어 있다. 그렇다면 不屈歌는 淫哇의 노래가 아니고, ‘蛇龍系’의 것으로서 이 蛇龍系는 〈執念의 希願〉을 주제로 하고 있다. 丹心歌 역시 마찬가지다. 漢文으로 혹은 국어로 어느 것으로 表現되었든 그것은(蛇龍系) 고려시대의 詩的表現法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보인 平時調型的 번역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淫亂하고 鄙陋함이 있는가? 邊大隱의 작품 원전은 漢詩이다. 일찌기 蔡山 權相圭의 말씀도 그 詩의 簾法과 미숙으로 보아 我國文章이 아닌 中華文體로서 邊大隱의 작품이라 했다. 그렇다면 宋詞의 영향이 아닐지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끝으로 최초 黃溟江이 不屈歌를 國文歌詞로 파악한 것부터 잘못으로 그 때문에 不屈歌를 가지고 사설시조의 발생시기를 논거로 한 견해²¹⁾ 그것은 모두 수긍될 수가 없다. 國文學史에서 士大夫가 사설시조를 原歌로 漢譯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이며, 英正時代에 오면 사설시조의 대두에서 平民들이 士大夫의 文字를 常套語化하여 대화에서 농짓거리(藝慢戲狎)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는 비유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不屈歌」(사설시조)와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서

· 大川바다 한가운데 中針細針 싸지거다

열나른 沙工놈이 굿무된 사웃대를 굿곳치 두러메여 一時에 소리치고 귀쾌어 내단말이 이서이다.

님아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한여도 님이 짐작 亨쇼서 (珍靑501)

사설시조란 이런 상투어를 사용하므로 長型化되고 演戲化 한다. 不屈歌는 그 原典이 漢詩였다.

20) 姜誼燮, 위의 책, p. 48.

21) 金 鍾, 「辭說時調의 淵源考」 韓國言語文學 제16집, 1978.

黃忠基, 「長時調의 發生考究」 語文研究, 제36~37, 합병호, 1983. 2.

金學成, 「辭說時調의 장르形成 再論」, 大東文化研究, 제20집, 1986.

IV. 巨村의 人文事蹟

大隱 邊安烈은 顯, 瀨, 預의 세 아들을 두었다. 玄孫 邊希李(號, 歸溪官, 刑曹佐郎 忠武府使)와 邊希又(官, 副司直)는 從班間인데 燕山君 4年(1498)에 戊午土禍를 피하여 嶺南에 始居하면서 希李는 醴泉郡 歸來谷으로 希又是 榮州로 各居하였다. 希又公이 아들 넷을 두었는데 끝의 邊 廣이 安東 金溪里로 옮겨와서 永淸, 永澄, 永淳, 三兄弟를 두었다.

永淸(1516~1578)은 자가 開伯이오 호는 東湖이다. 退溪門下에서 글을 배웠다. 明宗 4年(1549) 文科에 급제하여 弘文館 正字, 修撰, 司諫院 正言, 弘文館 校理, 大丘府使,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서 執義에 이르렀다. 親喪를 당하여 居喪中 別세하니 享年이 63세였다.²²⁾ 바로 東湖公이 지금의 安東 金溪의 顯祖이고, 둘째 永澄은 청도로 옮겨가고, 끝의 永淳이 巨村의 入鄉祖이다. 邊永淳은 生員이요, 號는 晚翠堂이다. 配位는 全州李氏 孝寧大君의 자손이요 宗室司正 李貴胤의 따님이다. 李貴胤은 光山金氏 雙碧堂 金筠의 사위이다. 晚翠公이 奉化 巨村에 들어와서 子孫을 위한 터전을 닦은 분이다. 그후의 人文事蹟을 간추려 본다.

栢山 邊慶會(1573~1663)는 巨村을 破僻하신 분이였다. 字는 君遇요 栢山은 號이다. 入鄉祖이신 晚翠堂 邊永淳의 아들이다. 栢山公은 宣祖 6年(1573)에 나서 顯宗 4年(1663)년에 考終하니 享年이 90歲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孝友가 지성하였고 독서를 좋아하여 自力으로 공부하였다. 訥齋 李弘準이 고을에 學堂을 설치하고 講學하니 거기에 나갔다. 공이 李弘準의 甥姪이었다.

宣祖朝 壬辰倭亂에 공은 분연히 일어나 任 訖과 琴胤先과 함께 義兵을 일으켜 공이 義兵大將에 추대되었다. 공은 家財를 내어서 軍糧으로 썼다. 공의 공적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고, 平亂後 軍功으로서 掌樂院直長에 除授되었다. 나이가 大耋로서 通政大夫 龍驤衛副護軍을 받았다. 1男2女를

22) 陶山門賢錄 坤卷, pp. 47~48.

두어 아들은 鎭인데 禮賓이요, 사위는 進士 李慶南과 縣監 金是權이다. 龜陽書院 大隱先生에게 配享되어 있다.

鳳隱 邊克泰(1654~1717)는 자는 如和요 鳳隱은 號이다. 栢山公의 玄孫이다. 孝宗 5년(1654) 甲午에 나서 肅宗 42년(1717) 丁酉에 졸하니 享年이 64歲이다. 공은 天稟이 沈重하고 強毅하고 용모가 壯大하였다 한다. 辛亥年 18歲 때 큰 흉년이 들어서 강도가 자주 일어났는데 마침 父兄의 방에 강도가 들어 앞 일을 예측할 수 없는지라 공이 들어가서 父兄의 몸을 가리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리하여 도적의 칼에 수십 곳의 상처를 받아 사경에서 다시 회복을 하였다. 공의 回生은 전설적인 신령의 약을 얻어서 나왔다 한다. 공의 효심과 우애와 굶주린 자를 救恤한 일은 오래도록 칭송되었다. 贈朝奉大夫童蒙校官이다. 역시 栢山公과 함께 龜陽書院 大隱先生에게 配享되어 있다.

끝으로 巨村에서 나온 資料文集을 들면 栢山·鳳隱 「兩代忠孝錄」이 있고, 邊慶會의 遺稿 「壬亂日記」(필사본)가 있다. 그리고 邊振鐸의 「龜雲集」, 邊鍾基의 「澹溪集」, 邊台均의 「勉窩集」, 邊鎬達의 「謹菴集」이 있고 이 故庄의 「孝狗史蹟」이 있다. 近世의 事蹟은 勉窩 邊台均의 업적이다.

세칭 巨村邊氏는 安東文化圈 중에서도 그 村郷은 秀麗한 野麓이고, 退溪先生 學風의 脈路이다. 특히 崇祖精神과 氏族間에 敦睦이 두텁다. 오늘날의 龜陽書院은 儒林의 公議에 의한 건립이나 그 건축비 등 일체의 物力은 邊教雨氏의 전담이었다.²³⁾ 1984년 11월 10일에 落成되었다.

23) 龜陽書院誌 1984.11. 刊. 後記를 참조.